

- 주요 뉴스: 미국 10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둔화 시각을 뒷받침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
 - 미국 11월 ISM 제조업자수, '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의 기준 50 하회
 - 중국 당국, 주요 지역에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 점진적으로 완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와 경기침체 우려 등이 상충

주가 하락[-0.1%], 달러화 약세[-1.2%], 금리 하락[-1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가능성 등이 영향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강세 등으로 6개월래 최고 수준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 전망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1.1%, 2.0%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2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04.0원, +4.3원) 0.4% 상승, 한국 CDS 보합

주요 지표					주요 지표				
		12/1일	11/30일	전일대비			12/1일	11/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76.6	4,080.1	-0.09%	국채금리 10y	미국	3.50%	3.61%	-10bp
	유럽	443.96	440.04	0.89%		독일	1.81%	1.93%	-12bp
	중국	3,165.5	3,151.3	0.45%		영국	3.10%	3.16%	-6bp
	일본	28,226	27,969	0.92%	CDS 5y	한국	49bp	49bp	0bp
	한국	2,479.8	2,472.5	0.30%		중국	76bp	78bp	-2bp
환율	달러지수	104.72	105.95	-1.16%	위험지표	EMBI+	-	386	-
	유로화	1.0524	1.0406	1.13%		VIX	19.88	20.58	-3.40%
	엔화	135.31	138.07	2.04%		WTI유	81.22	80.55	0.83%
	위안화	7.0534	7.0924	0.55%	원자재	구리	379.7	373.0	1.80%
	원화	1,299.7	1,318.8	1.47%		금	1,802.7	1,768.5	1.9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0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둔화 시각을 뒷받침

-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향방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지표로 거론한 근원 PCE 물가의 10월 월간 상승률이 0.2%를 기록하여 전월(0.5%) 대비 하락. 연간 상승률 역시 전월비 낮은 수준(5.2%→5.0%). PCE 물가의 경우 연간 상승률은 하락(6.3%→6.0%)했고, 월간 상승률은 보합(0.3%→0.3%)
- 이번 결과는 10월 소비자물가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발신. 이는 긍정적인 결과이나 파월 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관련 안도감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리인상 폭이 축소될 수 있으나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한편 개인소비지출의 월간 증가율은 0.8%로 전월(0.6%) 대비 높은 수준. 견조한 노동시장에 따른 임금상승과 캘리포니아주의 일회성 세금 환급 등이 소비여력을 확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소비 관련 지표들은 경제 회복력이 매우 강력함을 시사(RSM US의 Joseph Brusuelas)
- 또한 양호한 소비활동은 성장률이 3/4분기에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는데 크게 기여.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 보다 높고 많은 가구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 이에 내년 하반기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

- 윌리엄스 총재는 최종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려면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질 때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 연준의 보우만 이사는 그 동안 단행한 금리인상의 경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당분간 금리인상 속도를 늦춰야하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 바 부의장 역시 12월에는 금리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미국 11월 ISM 제조업지수, '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의 기준 50 하회

- 11월 ISM 제조업지수는 49.0을 기록하여 전월(50.2) 대비 하락. 이번 결과는 최근 소비의 중심이 제품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세부항목들은 공급망 차질이 개선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 다만 신규 고용 등은 전월보다 부진한 것으로 확인

■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실질금리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

-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금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발언. 한편 그리스 중앙은행 스투나라스 총재는 향후 추가 금리인상의 경우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중국 당국, 주요 지역에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 점진적으로 완화

- 광저우는 도심 9개 구의 전면적인 방역 봉쇄를 완화한다고 발표. 충칭 역시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이동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격리를 축소. 이러한 동시다발적 방역 조치 완화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추정
- IMF는 단기적 측면에서 감염자 증가가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지만, 방역 지침의 조정은 내년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전월비 소폭 상승. 다만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

-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4를 기록하여 전월(49.2) 및 예상치(48.9) 대비 높은 수준. 그러나 4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인 50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이는 4/4분기 성장률이 부진할 수 있다는 신호.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 촉진을 위해 좀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만건): 22.5, 전주(24.1), 예상치(23.5)

■ 주요 경제 이벤트(1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및 ECB 총재 강연, 미국 11월 고용보고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정크본드 시장 반등,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고점 통과 기대를 반영 - WSI

(Junk Bonds Rally as Investor Speculate Inflation Has Peaked)

- 금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투기등급 기업들의 부채상환 능력과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 다만 10월 이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
- 조만간 통화긴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반등의 주요 배경. 기업들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이 양호하고 부채감축도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침체가 도래해도 채무불이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
- 그러나 일부 비관론자들은 과거 경기침체기와 비교할 때 현재 정크본드 가격에 반영된 신용위험 수준이 너무 낮아 투자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 미국 경제 주체의 현금 보유 감소, 경기침체 위험을 확대 - Financial Times

(The deflating of the great cash cushion)

- 코로나 19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가계의 저축을 늘리는데 기여했고, 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수요 증가로 연결. 그러나 애틀랜타 연은에 의하면,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저하
- JP Morgan은 '23년 하반기에 가계 초과 저축이 고갈된다고 추정.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저축 축소도 경계해야할 요인. 특히 설비투자 위축은 기업의 보유 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자 자금난이 반영된 결과
- 향후 경기의 연착륙 혹은 경착륙 여부가 중요하나, 경기침체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주요 경제 주체의 현금 보유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기 어려운 사안

■ 파월 의장 연설 이후 금융시장 반응, 효과적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신호 - 블룸버그

(Powell and the Markets Talk Past Each Other)

- 11/30일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 해당 발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했으나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해서 인식했기 때문
-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시장의 도움이 필요한 연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또한 시장과의 효과적 소통에 장애물이 존재함을 시사. 물가안정 목표 달성과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압박의 극복도 어려워질 가능성

■ '23년 투자전략, 3가지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 - Financial Times

(Investors need a different playbook for 2023)

-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하고, 성장 우려가 커지면 국채를 매수하던 투자 전략은 과거 수십 년간 좋은 성과를 안겨줬지만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 이유는 다음의 3가지 추세가 장기화되고 경기침체 및 예상 밖의 강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 1)인구 고령화 → 노동공급 감소, 2)세계화 재편과 탄력적 공급망 구축 → 생산단가 상승, 3)저탄소 세계로의 전환 → 에너지 수급불일치
-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억제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침체에 신속한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 이에 주식 및 채권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투자심리가 회복되어도 주가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강세 국면이 단기에 그칠 소지

■ 연준의 통화정책, 점진적인 실업률 상승 계획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 - 블룸버그

(The Fed Is Now Relying on a Miracle to Save the Economy)

■ 엔화 약세, 일본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오히려 강세 전환이 요구 - WSJ

(The Weak Yen Is a Mixed Blessing for Japan Inc.)

■ 중국 인민은행, 맞춤형 방식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전망 - Reuters

(China c.bank to offer limited, targeted growth support, no bazooka)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러시아의 반발로 시장 왜곡 심화시킬 우려 - WSJ

(Capping the Price of Russia's Oil Is a Risky Balancing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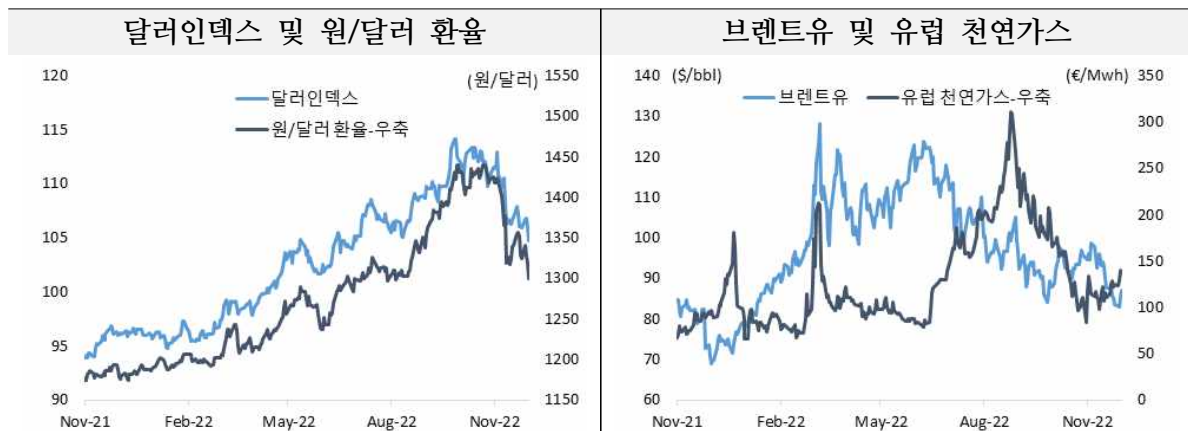
■ 인도의 아시아 지역 인프라 대출 확대, 중국 일대일로 대응 등이 목적 - Financial Times

(India's plan to take on China as south Asia's favourite lender)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